

사설

엔터리 환경영향평가

우리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분별한 개발상주의와 특정 업체 등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탐욕과 결탁하여 거꾸로 우리 삶의 터전을 합법적으로 파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97년 9월부터 8개월간에 접수된 150건의 평가서 가운데 90%가 부실 작성되었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를 아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부실 이래 얼마나 많은 환경훼손이 저질러졌을 것인가?

그 환경훼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환경파괴의 문제는 바로 불교의 계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살생의 계율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된다. 대량학살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살생이 제도의 잘못된 운용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위하게 방관하고 있다면 개인 차원에서 불살생 계율의 준수는 거의 의미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과연 우리 불교계와 불자들이 이러한 비판의 화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가르침을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물고기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나무들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명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불교, 저것을 죽여서 결국 우리가 죽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교는 대량 학살의 방관자이며 방조자일 수 밖에 없다.

불자들의 안전한 대응에 대한 부처님의 꾸짖음처럼,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파괴는 사찰환경의 파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해인골공장의 경우 184종의 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로 사업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단적인 예를 통해 환경과 파괴 바로 불교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 불자들의 의식이 눈뜨게 된 것을 계기로, 온 불교계가 '환경지킴이'로 나서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2월 조계사에서 열리는 사찰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는 불자들의 환경에 대한 수호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우선은 사찰의 수형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채질하는 잘못된 제도 운영과 법제정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여, 정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힘과 고양된 의식을 바탕으로 좀 더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반 환경적인 정책은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해제 등으로 환경파괴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 불자들이 지켜주어야 할 생명들의 삶의 터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절박하게 불교계에 문제가 닥친 이 시점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안이한 자세를 한번에 떨쳐버리고 보다 큰 안목에서의 장기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모든 불자들이 나서야만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야말로 생명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환경지킴이로 나서기 전에 그 명실상부한 운용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모든 불자들의 뜻을 모아 그 엄한 실행을 촉구하고, 또 엄한 실행을 보장하는 만족할만한 제도적 보안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 환경지킴이 운동의 첫 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외유출 문화재 7만여점

日 3만3천여점·美 1만5천여점·英 7천여점 등 문화재청 국감자료...발굴유물 88만건 신고안돼

수원관음도, <왕오천축국전> 등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99년 9월까지 일본, 미국 등 18개국 7만 329건에 이르며, 국내 출토·발굴 미신고유물도 64년부터 지금까지 88만587건으로 누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해외유출 문화재는 문화재청, 국제교류재단, 대우재단 등이 최근까지 40여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해외유출 문화재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동안 1천8백여 점이 늘어났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3만3천75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

1만5천414점, 영국 7천189점, 독일 5천246점, 러시아 3천350점, 프랑스 1천519점, 덴마크 1천470점, 중국 1천434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문화재 가운데 지난 58년부터 지금까지 3천883점(일본 3천461점, 뉴질랜드 193점, 미국 228점, 프랑스 1점)만

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수 문화재에는 수원관음도(일본), <직지심체요절>(프랑스), 왕오천축국전(프랑스) 등 국보급 문화재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해외유출 문화재 반입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4천5백여만원에서 3천7백여만원으로 삭감, 해외유출 문화재 회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64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출토된 유물 가운데 관계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유물이 88만58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들 문화재는 발굴 기관과 목록만 조사됐을 뿐, 사진·문헌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유물은 관련 학계에서 연구 대상으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또 84년부터 도난·도굴당한 불교문화재는 316건에 총 453점,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7점에 불과했으나 비지정 문화재는 429점으로 9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건수는 97, 98년 두 해동안 2천여점이 도난·도굴된 반면 99년에는 60점에 그쳐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비지정문화재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군포교 제도 개선위 구성”

조계종 포교원...내년부터 군중병 자체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9월28일 포교원회의를 열고 정례상대에 있는 군포교의 진흥을 위해 (가칭)군포교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10월초에 신설되는 군포교제도개선위는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 예비군법사단,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회의 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군승특별교구의 추진 △군승 총원제도 보완 △군포교 관련법령(종헌, 포교법, 군승령, 군승칙 등) 개정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10월초 군승단 등과의 실무회의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말까지 군포교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군포교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500여 군중병들의 조직화 전문화를 위해 연2회 '군중병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키

로 했다. 포교원 관계자는 "올들어 예비군법사단 등 군포교관련 단체와 종단간의 채널형성, 진각종 군승참여 개방 문제의 급진전, 종회의원 등 사부대중의 군포교 관심증대 등의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 더 이상 군포교 할

성화를 미룰 수 없다는 종단 안팎의 여론이 높다"면서 "이를 계기로 군포교제도 전반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리해 오는 11월 중앙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안에 제도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9월28일 열린 원로회의의 안건 논의에 앞서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총무보고를 하고 있다.

“현안대책위 해산”

선학원이사회 결의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정일)는 21일 서울안국동 중앙선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과 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현안대책실무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선학원 이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조계종 중앙총회가 지난 9월 15일 142회 임시총회에서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안)' 인준을 차기총회로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학원과 조계종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은 곧 현안대책실무위 해산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장을 맡아 조계종과 대화에 나섰던 성문스님은 "다이상 조계종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이사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종헌 개정후 새 원로의원 선출키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9월 29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새 원로의원 선출 건을 논의했으나 원로의원 연령 하한선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종헌 개정 후 선출키로 했다. 현재 중앙총회에서 원로의원에 추천된 스님은 11명이며, 이 가운데 세남 70세 이상인 스님은 청화(광주 정광사), 이두(청주 관음사), 활안(송광사 천자암), 덕명(부산 안좌사) 스님 등 4명이다. 원로회의는 또 10월 22일로 임기만료되는 전계대화상 추천 건도 논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추천키로 했다. 새 전계대화상으로는 현 전계대화상인 청하스님과 보성스님(조계총림 방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며 종정이 위촉되도록 돼 있다. 전계대화상의 임기는 3년

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계대화상은 계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계사의 위촉 및 해임,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증계아사리 위촉권을 지닌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원 19명 가운데 의장 탄성스님과 부의장 종산 도원스님, 청하 녹원 도전 정헌 승산 응담 지종승수 보성스님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제11회 포교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4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추천분야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일반신도 등 일반포교분야와 군 경찰 공무원 교정 교화 장애인 국제 방송언론 문화예술 출판 등 특수포교분야 등이 해당하며 후보자 이력서와 포교활동 공적서,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추천서 및 종단등록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포교대상은 오는 12월 4일 시상된다.(02) 720-7060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종회 대의기구 역할 미흡”

재가연대 '조계종 종회 모니터' 발표 "종회가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성원미달로 폐회하는 등 종도들의 대의기구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142회 임시 중앙총회 모니터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종무보고서 부장스님들이 소관부서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수행자 답지 않는 비어 사용과 산만한 회의 분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출석 및 정책질의 내용을 보면 재적의원 78명중 4일간 평균 46.25명이 출석, 출석율은 59.25%를 차지했다. 종

책질의 및 보충질의 한 의원은 38명으로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특히 비구니스님들의 종회 참여 및 질의가 미미했다. 종회기간 내내 불참한 비구니 의원의 스님도 4명이나 됐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정책질의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등 종회가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안건토의시 종헌·종법·종령에 의거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opia.com)

현대만평 박구원

있어서는 안될 일

은해사 제 1190년 개산대재 및 본사주지스님 진산식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일 시 : 불기 2543(1999)년 10월 16일(음 9.8)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법회안내

■오전 9시	다례재 - 부도전
■오전 10시 30분	개산대재 및 본사주지 진산식
■오전 11시 30분	지장보살 봉안식
■정오	점심공양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오후 4시	영가천도재
■오후 5시	저녁공양
■오후 6시	만등불사 점등식
■오후 6시 10분	대구불교방송 국악관현악단 초청 산사 국악 한마당

▷장 소 : 제10교구본사 팔공산은해사 금강계단
 ▷동참금 : 보살계 - 2만원, 만등불사 5천원, 영가천도 5천
 ▷문의전화 : 은해사 (0563)335-3318-9, FAX(0563)335-0293
 평불협 (02)735-5558-9, 은해사 교구 각 말사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매월 음력 3일, 18일) 대구, 경산, 영천, 하양 지역 버스를 운행합니다.
 ※행사 전달(15일) 철야기도 하신 분은 미리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증명 東谷 日陀

三 師 七 證

<p>전계아사리 (如天無比) 갈마아사리 (法融智嚴) 교수아사리 (包雲性眞)</p>	<p>包山慧印 (악천사 회주) 靑菴法祖 (고문사 주지) 錦牙慧國 (남국 선원장) 中和法陀 (은해사 회주) 海圓金龍 (승가대학원학장) 金潭智溍 (극락 선원장) 包賢法義 (은해사 주지)</p>
---	---

불기 2543년 9월